

■ 2026 새해설계 교수경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회장

# “AI·디지털 전환으로 여성벤처 미래 경쟁력 키운다”

형식적 네트워크 넘어 실행형 협업 체계 구축  
기술·인력·마케팅 연계…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여성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교수경 회장은 새해를 맞아 여성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수경 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여성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6년은 여성벤처기업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올해 여성벤처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보다 실행력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여성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교육을 넘어, 기업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여성벤처기업인의 지속적인 발굴과 회원사



확대를 통해 협회의 기반을 넓히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선배 기업인과 젊은 스타트업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세대 간 경험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경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한 여성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네트워크 활동에서 벗어나 ‘실행형 협업 구조’ 구축에 주력해 기업 간 기술, 인력, 마케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업 성과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CEO혁신아카데미를 비롯

해 AI 교육, 벤처기업 인증 교육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 상황에 맞춘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기업 역량 축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교수경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한 여성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여성벤처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수경 회장은 “협회는 단순히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올 한 해, 여성벤처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끝으로 교 회장은 새해를 맞아 여성벤처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교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도전과 혁신이 여성벤처의 미래를 만든다”며 “서로를 연결하고 성장시키는 든든한 공동체로서 협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마이마스터즈’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이벤트홀에서는 디자인 작가들의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상품들을 제안하는 ‘마이마스터즈 팝업스토어’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공개기 암호 위험성 선제 대응  
KISA, 28일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6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는 미래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체계다. 현재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공개기 암호는 양자컴퓨터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KISA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의료, 행정 등 국민 생활과 밀

접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양자내성암호 적용을 위한 기술적 요건과 알고리즘별 성능, 실제 적용 시 제약사항 등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교통, 국방, 금융, 우주, 통신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로 시범 전환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조한천 기자 pose007@

김성관 대표,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출마

‘시장 파이 키우는 경제 회장’ 강조…내달 5일 총회서 선거

전남 영광 출신 기업인 김성관 삼진일렉스 대표(사진)가 제28대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삼진일렉스는 최근 김성관 대표가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협회 전면 개혁과 전기공사사업계의 권익 신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가 제시한 핵심 비전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경제 회장’이다. 그는 현재

약 7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전기공사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협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체감도가 낮았던 기존 협회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가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은



회원사 실익과 협회 운영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공약은 전기공사 시장 70조원 확대, 소규모 회원사를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회원 편의 강화를 위한 종합민원 대응 콜센터 운영, 한전 단가 계약 수익성 강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부 부처·발주처와의 신뢰 회복, 정부 정책 지원 보장 추진 등이다.

한편 제28대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는 다음달 5일 전국 시·도회 총회에서 현장 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송대웅 기자 sdw0918@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광주신세계, 키즈 멤버십으로 고객 유치

㈜광주신세계가 다채로운 혜택을 선사하는 서비스를 앞세워 키즈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업체 ‘피치북’(Pitch Book)은 2025년 국내 키즈 산업 시장이 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신세계는 키즈 멤버십을 지난해 하

반기 도입과 함께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혜택을 더한 서비스를 통해 키즈 고객 발길을 이끌고 있다.

키즈 멤버십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고객 중 신세계백화점 산업 시장이 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키즈 멤버십은 아동 브랜드 10

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권, 건강식

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권 등 가입 축하 쿠폰 4종 증정이다.

또 아동 브랜드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권 등 6종의 쿠폰을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1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관 4층 멤버스바 음료 1잔 이용권 등 월간 정기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정기 할인쿠폰과 동일하게 매월 쿠폰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증정일로부터 30일까지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